

## 혁명관을 인생관화할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

서국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 여기에 가장 빛나는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함으로써 혁명관이 인생관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2권 93페이지)

혁명관을 인생관화할데 대한 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이 혁명위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는데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할데 대한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사람이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데 가장 빛나는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데 대한 사상이다.

혁명관을 인생관화할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독창적이며 정당한 사상이다.

혁명관을 인생관화할데 대한 사상은 무엇보다먼저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는 우리 혁명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

혁명은 간고한 투쟁을 동반한다. 혁명의 길은 하루이틀 가야 할 길이 아니며 순탄한 길도 아니다. 이 길에는 시련과 난관도 많고 예견치 않았던 가지뎀불이 가로놓일수도 있다. 더구나 우리 혁명은 그 특수성과 복잡성으로 하여 더 험난한 시련의 길을 헤쳐가야 하는 간고한 혁명이다.

원래 혁명은 간고성과 함께 장기성을 띠는 투쟁이다. 우리 혁명은 간고성과 장기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혁명이다.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는 우리 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뚫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그 어느 나라, 어느 력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이겨낸 간고분투의 력사이다. 항일혁명투쟁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이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인민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당과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왔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인생관을 지니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만난시련을 이겨내면서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당을 따라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오게 된것은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혁명의 한길만이 자기들의 참된 삶, 가장 빛나는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싸워왔기때문이다.

혁명관을 인생관화한 신념의 강자만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의 길에서 최후의 승

리자가 될수 있다. 때문에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은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 여기에 가장 빛나는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함으로써 혁명관이 인생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의 길에서 혁명관을 인생관화하지 못한 사람은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조성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락오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평시에는 혁명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것처럼 말하다가도 생사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시기가 닥쳐오면 혁명적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뒤걸음질치거나 변절하는 사람도 있다. 어려운 시기에 혁명적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뒤걸음질치거나 변절하며 동요하는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칠 자기희생정신이 없기때문이다.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자면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혁명가는 한생을 혁명에 바칠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이다. 혁명가의 높은 정신세계는 개인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혁명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것을 영예와 보람으로 여기는데 있다. 그들의 삶의 보람과 행복은 오직 혁명투쟁속에 있다.

혁명관을 신념으로 간직하는것은 혁명가의 가장 중요한 품모의 하나이며 혁명가가 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사람들이 일생을 값있게 살자고 하여도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혁명가들이 만난을 뚫고 자기의 목적을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도 언제나 혁명적신념이 있어야 한다.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데 참된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할 때, 혁명관을 인생관화할 때에만 혁명의 시련을 이겨내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관을 인생관화할데 대한 사상이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는 우리 혁명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당한 사상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혁명관을 인생관화할데 대한 사상은 다음으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을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볼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을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보고 그것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관을 인생관화하는 사업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그 정치사상적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수령, 당, 대중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투철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서 혁명과 건설이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아니면 침체와 답보상태에 빠지는가가 결정된다.

사람들이 혁명관을 인생관화하여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다.

사람들이 혁명관을 인생관화하면 우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자세와 립장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게 된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자세와 립장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것은 사람들이 값높은 삶을 빚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혁명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한목숨 기꺼이 바치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진 사람만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끝까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삶을 값있게 빚내일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은 혁명의 길에서 좋을 때나 생사를 판가리하는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나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따르고 받들어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쉽게 변질되기마련이다. 력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평온하고 행복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만세도 많이 부르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배신의 길에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불에 타도 고통을 잃지 않는 불굴의 혁명가로 살며 투쟁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혁명관을 인생관화할 때에만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자세와 립장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혁명선렬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참다운 혁명가들이였다. 그들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운명이 개척되고 나라와 민족이 룡성변영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건 오직 변함없이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랐다. 하기에 그들은 혁명의 길에서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에 수없이 부딪쳤지만 변함없는 자세로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갔으며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이 혁명관을 인생관화하면 또한 혁명의 길에서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게 된다.

사람의 보람있는 삶은 혁명의 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을 창조하면서 사는데 있다.

사람이 혁명을 하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하여서뿐아니라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하는것이다. 만일 사람이 그저 자기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한생을 마친다면 남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그런 사람의 한생은 아무런 보람도 없는 무의미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것으로 되자면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어야 한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예우고 풍찬로숙하면서 굴함없이 싸운것은 편안한것이 좋은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간을 살아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싸우는것이 보람있게 사는 길이라는것을 자각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투쟁은 순탄한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니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혁명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 참된 삶의 보람이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고 후대들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길에서 겪게 되는 고

생도 달게 여기면서 인민들과 미래를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쳐나가게 된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고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사리와 공명을 추구하면서 자기 개인의 안일과 행복을 찾는데만 몰두하게 된다.

혁명관을 인생관화한 사람만이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려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과 후대들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게 된다.

혁명에 대한 신념, 혁명관을 인생관화할 때에만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수 있으며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관을 인생관화할데 대한 사상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을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볼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사상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관을 인생관화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헌신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이룩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혁명관, 인생관화